

개인전 여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빌 비올라

“예술은 영혼의 통로를 찾는 일”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미국 출신 세계적 ‘영상 시인’ 빌 비올라(64) 회고전이 열렸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관람객들이 전시장 바닥에 삼삼오오 누워 대형 스크린 속 영상을 느리게 관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제롬 노트르는 “빌 비올라가 지난 40년간 힘겹게 싸워 온 질문은 세 가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마치 폴 고갱 유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그가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대형 신작 여섯 점을 펼쳐 보이는 개인전을 연다. 국내 개인전은 2008년 국제갤러리 전시에 이어 7년 만이다. 스타 아티스트의 예술 세계를 안방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시간에 쫓기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빌 비올라는 느낌과 명상의 미학을 선보인다. 특히 사막이나 바닷가 등에서 혼자나 둘이 끊임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많다.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을 걷는 한 남자를 촬영한 비디오 작품 ‘내적 통로’에서 남자는 사막 저편에서 하나의 희미한 점이었다가 점점 관람자에게 가까워진다. 타버릴 듯한 한낮의 열기, 밤의 저릿한 추위, 눈이 부실 만한 강렬한 햇빛, 칠흑 같은 어둠, 가늠할 수 없는 거리 등 그가 걸으면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은 적지 않다. 그는 길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2012년 작품 ‘조우(encounter)’ 역시 서로 정반대 인생을 살던 두 여인이 각자 여행을 하던 중 어느 한 지점에서 아주 짧은 순간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녀가



비디오·사운드 설치 대형 신작 6점 느림의 미학 담은 작품 눈길 7년만에 국제갤러리서 전시

황량한 사막을 걷는 ‘가녀린 실’에서 그들은 결국 긴 여정의 끝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선택한다.

현대적인 순교의 의미를 탐색하는 ‘물의 순교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지난해 5월 런던 세인트폴성당에 영구 설치된 이 작품은 흙과 바람 불 물 등 4대 기본 원소를 소재로 한 ‘순교자’ 시리즈 중 하나다. 거꾸로 매달린 한 남자 위로 폭포수처럼 물이 세차게 떨어져

내린다. 물의 세기가 점점 강해질수록 순교자의 강직함은 더욱 견고해진다. 결국 그는 하늘로 승천하듯 위로 올라간다. 한국을 찾은 빌 비올라는 “사람은 신념과 가치를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존재”라며 “예전에 순교자들은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표출했지만 현대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각성시키고 싶었다”고 했다.

“예술가들에게는 평생 봐야 할 여러 공간이 있지만, 영혼이라는 공간이 가장 깊이가 있어요. 내가 꿈꾸고, 위안을 얻고 또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내 안의 영혼이죠.” 그는 고통에 대해서도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5월 3일까지. (02) 735-8449 이향희 기자